

산청종친회 제32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준비 모임 및 신년하례회 개최

산청종친회(회장 권영복)는 제32회 전국청장년체육대회를 4월 12일(일) 산청 공설운동장에서 주최함에 따라 권해옥 대종회 회장과 권영호 지역총친협의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청장년체육대회 준비 모임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였다.

권해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능동성역화 사업의 일환으로 평창공과 확립공 사적비 제막식 등 작년에 이룬 성과에 대해 말하고 앞으로도 시조 묘소 진입로 개선 등의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니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급년 산청에서 개최되는 제32회 전국 안동권씨 청·장년 체육행사는 역사적인 의미가 큰 만큼 작은 군단위에서 행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국 100만 족친의 힘을 모아 차질없이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권영호 지역총친협의회장은 축사에서 52개 지역회장단에서 전국체육대회가 훌륭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으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부탁했다. 권영복 산청종친회장은 산청은故권익현 국회의원과 권영길·권경석 전 국회의원의 고향이다. 안동권씨의 저력을 바탕으로 제32회 전국안동권씨 청장년 체육행사를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권병국 대회장과 권희성 사무국장



(산청청년회장단)은 힐링관광의 중심지 산청에서 명품 안동권씨 체육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더불어 족친간에 활발하게 교류하고 종친회, 청장년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산청청장년회 회장 권병국

경자년 태사묘 정알례 봉행

2020년 1월 27일(음력 정월 초3일) 안동시 태사길(북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삼성(三姓)인 안동권씨(安東權氏), 안동김씨(安東金氏), 안동장씨(安東張氏)의 후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자년(庚子年) 정알례(正謁禮)를 봉행하였다.

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남부지방에 비가 오기 시작하여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어서 참석자들이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다행히 정알례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 쉬기도 했다.

이날 김광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장숙진 태사묘관리위원회 회장,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김숙동 안동김씨 안동화수회장, 권오을 무소속 안동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택기 자유한국당 안동시 국회의원 예비후보, 권오의 대종회 사무부총장, 권정창 제례위원장, 권영길 한국학진흥원 인문연수원장, 권기창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장, 권영건 부호장공과평화회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권영화 태사묘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의 집례로 권숙동, 김동량, 장은주 등 세현관(獻官)이 각각 자기 조상에 분향(焚香) 헌작(獻爵)하고 밖으로 나와 후손 모두가 함께 제배(再拜)하였다. 정알례가 끝나자 후손 참석자들은 동·서로



나누어 서로 마주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상알례(相揖禮)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장숙진 태사묘관리위원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년초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정알례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고 올 한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정알례를 모두 마친 후손 참석자 전원은 송보당(崇報堂) 앞뜰 잔디밭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였다.

안동권씨 일족(一族)은 권숙동 안동종친회장, 권정창 제례위원장, 권영길 한국학진흥원 인문연수원장 등 20여 명이 권오의 대종회 사무부총장이 준비한 간단한 주과포(酒果脯)를 가지고 안

동시 서후면 능동으로 이동하였다.

시조묘소에는 권영근씨(태사묘 부위원장), 평창공 묘소에는 권한수씨(별장공파), 남중공 단소에는 권경용씨(대종회 부회장)가 각각 분향 헌작하고 제배하는 것으로 능동의 정알례도 모두 마쳤다.

안동권씨 일족 20여 명은 안동시 대안로(태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자방’ 식당에서 권숙동 안동종친회장이 건배 제의를 한 후 떡국을 먹으면서 환담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헤어졌다. 이날 점심 식사는 권영화 태사묘 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부담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보도부장 권영건

서울지역 회장단 신년하례회 개최

서울지역 회장단 신년하례회가 1월 10일(금) 12시 강남구 선릉로 85길 뉴브호텔(권태석 회장)에서 권해옥 대종회 회장, 권영의 수석부회장, 권영성 상임부회장, 권태석 부회장, 권영성 변호사, 권경석 전 국회의원, 권기욱 부회장, 권대복 부회장, 권영하 부회장, 권오강 부회장, 권오상 대종회 총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권태석 부회장이 뉴브호텔 개원 기념으로 서울지역 회장단을 초청해서 이루어졌다.

권해옥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권태석 부회장이서 호수를 개원하고 서울지역 회장단을 초청해서 신년하례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새해에도 안동권씨 대종회를 중심으로 날로 발전하고 화합하여 대한민국에서 으뜸 성씨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권태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새해 안동권씨 족친들이 호텔을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고 고맙다. 앞으로 대종회가 더욱 발전하기길 바라며 족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영성 능동성역화사업 추진위원장은 지난 8일 능동제사에서 열린 추진위원회 회의 내용 등 시조 묘소 진입로 공사 추진 상황과 진입로 입구에 세울 예정인 표지석 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다.

권해옥 회장은 시조 묘소 진입로는 너무 대중적이거나 너무 흔해 빠지고 너무 서민적인 것은 지양하고 되도록 조금 고급스럽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간단한 회의를 마치고 권태석 부회장이 특별히 마련한 점심과 호텔 뷔페식을 맛있게 먹고 신년하례회를 마무리했다. 권태석 부회장은 귀가하는 회장단 한 사



람 한 사람에게 신축성이 좋고 피로감이 덜한 100%면 양말을 직접 만들었다고 소개하면서 호텔 입구에서 일일이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권오강 부회장은 회장단 모두에게 중국 술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편집국장 권행완

2월 임원 선임 및 회비 납부 내역

임원 선임

<부회장>

권대봉(인천재능대학교 총장)

<부회장>

권혁찬(고양)

1,000,000원

<이사>

권용기(대전)

300,000원

총 : 1,300,000원

안동권씨대종회

존경하는 100만 족친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